

# 순천 희망 프로젝트 가동... 청년 일자리 창출 올인

### 시, 다음달까지 조례 마련...취업 지원·창업 육성 적극 나서 희망펀드·창업지원센터·청년물 등 꿈 펼칠 수 있게 총력

순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순천형 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위해 기존 법률이나 제도 등에서 실현하지 못한 부분의 취업지원, 창업육성,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담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는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업알선과 창업육성, 직업능력개발 지원, 창업지원센터, 청년점포 운영 등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 입법 예고했으며 조례 규칙심의와 의회 상정을 통해 3월말 조례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양만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순천 청년과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순

천사랑 청년희망펀드도 올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토론회 등 타당성 검토 후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에 '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순천 읍장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유망 창업가를 우선 선발하고 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순천역 주변에는 관광 시즌에 맞춰 청년물을 개장하고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등 운영 기관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순천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와 연계한 글로벌 웹툰 창작센터 등 창업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월드컵을 중심으로 음식, 뷰티, 문화기획자 등 청년 창업자 양성교육과 도시재생 선도지역내 매입건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 시범 프로그램



조종훈 순천시장이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과 토론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램프 운영한다.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창업준비 및 역량강화 등 교육,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신설하는 한편 조경기능사, 주택관리사, 영어통역사,

MICE 산업 전문가 등을 배출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조종훈 순천시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정원문화, 정원산업과 연계한 젊은 일자리 창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순천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순천만정원 '명물' 스카이큐브 운영 2년만에 '애물단지' 전략

### 100여억원 적자...운영 중단 검토 갈대밭까지 노선 연장 목소리도

포스코가 순천만국가정원에 첫 도입한 소형경전철(스카이큐브)이 운영 2년만에 '고철 강통'으로 전략할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 갈대밭을 경유하지 않는다. 탑승이 불편한 종착역 위치 등으로 외면을 받으면서 매년 수십억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어서다.

운영 중단시에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흉물로 전략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철거비용만도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대밭까지 노선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환경보존이 핵심인 순천만 갈대밭 주변으로 경전철이 진입할 경우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스카이큐브 운영사) 등에 따르면 스카이큐브를 개발한 포스코는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순천을 선정하고, 사업비 610억원을 들여 순천만국가정원역에서 순천문화관까지 4.

62km를 설치한 뒤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중이다.

하지만 스카이큐브 운영 업체는 최근 심각한 운영 적자를 이유로 운영중단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카이큐브 운영을 맡고 있는 순천에코트랜스측이 내놓은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까지 1년 8개월동안 운행해 100여억원(2014년 55억원, 2015년 4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은 2014년 5~12월 28만5000명(이용 수익 12억9500만원), 2015년에는 32만8000명(20억4500만원)이다. 업체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왕복 요금을 기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지만, 이마저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순천만 방문객들 사이에선 "요금 올려 적자폭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순천에코트랜스측은 종착역을 갈대밭까지 1.2km정도 연장하는 것만이 적자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스카이큐브 종착역인 순천만문화



순천만국가정원역과 순천문화관까지 4.62km를 오가는 스카이 큐브.

관역에 도착해 순천만 갈대밭을 가기 위해선 1km 이상을 도보 또는 갈대열차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갈대열차마저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영을 중단, 올해 스카이큐브 이용객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순천만을 오가는 단체관광버스 운전사들마저도 버스승객의 스카이큐브 이용을 꺼려하고 있다. 스카이큐브가 순천만을 경유하지 않으니, 대표 관광지인 갈대밭을 가기 위해 다시 한번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순천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최소 연간 75억원의 입장수입을 올려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올 상반기도 버티기 어

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본사(포스코)에서도 (스카이큐브를) 정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정원 순천시 의원은 "스카이큐브 운영 중단시 철거비만 700여억원이 예상되고 순천시와 포스코와의 협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등 막대한 손실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영모 순천만국가정원운영과장은 "스카이큐브의 적자문제 해결을 떠나 순천만의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운행보다는 스카이큐브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순천시, 터키 정원박람회 한국대표로 참여

순천시가 터키에서 개최되는 'EX-PO 2016 ANTALYA 정원박람회'(안탈리아 엑스포)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여한다.

2016 안탈리아 엑스포는 A1급 박람회로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대형 박람회다. 오는 4월 23일 개막해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개최되며 7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국비지원으로 안탈리아 엑스포장에 연면적 1371㎡ 규모의 순천만 국가정원을 모티브로 한 한국정원을 조성중이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에 맞춰 한국정원을

준공하고 엑스포 종료 후에는 정원산업의 상호 우호 협력 협약 등도 체결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참가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터키 정원 조성에 대한 교차정원 조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원 이미지를 높이고 안탈리아시와의 우호를 증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프랑스 낭트·농스, 중국 서안, 태국 치앙마이 등에 대한민국 전통정원을 조성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蘭의향연

### 순천만정원 '신비원' 내달 5일까지 공개



순천만국가정원이 '난(蘭)'과 봄꽃이 어우러진 이른 봄 풍경을 선사해 인기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난의 향연'이란 주제로 따뜻하고 향기 가득한 '신비원'을 선보인 모습도 눈길을 끈다. 순천만국가정원내 잔디마당에 만들어 놓은 대형 토파이어리 붉은 원숭이가족도 신비원과 함께 내달 10일까지 전시된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에 맞춰 한국정원을

다. 심비디움의 유연한 잎 모양을 활용해 나비족이 살고 있는 기형학적 공간 구조물도 선보이고 있다. 또 온시디움, 호접란 등 다양한 난류와 금어초, 철쭉, 프리지어 등 50여종의 봄꽃이 어우러진 모습도 눈길을 끈다. 순천만국가정원내 잔디마당에 만들어 놓은 대형 토파이어리 붉은 원숭이가족도 신비원과 함께 내달 10일까지 전시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충전시설 3곳 추가...전기차 6월까지 92대 보급키로

순천시는 16일 "전기차 구매자 모집과 완속 충전기 설치에 나서 오는 6월까지 모두 92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관내 법인·단체·기업 등(공공기관 제외)이다.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국가정원(서문, 신대출장소, 도청동부지역본부 등 총 3곳 이상에 공공충전시설을 추가해 총 11곳의 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92명 이하면 접수 순서대로 지원하고, 92명을 넘어서면 3월 중에 공개 추첨방식으로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기차량 보조금

2000만원과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전기차량 지원 희망자는 지난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기차 제조사별 순천 대리점 등이나 시청 누리집(www.suncheon.go.kr) 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전기차 판매점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6월까지 차량 인도가 가능한 전기차는 6종으로 레이EV·쏘울EV(기아자동차), SM3 Z.E.(르노삼성자동차), 스파크EV(한국지엠), i3(BMW코리아), 리프(한국닛산) 등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 KTX 5분거리
- ▶ 광주시청 10분거리
-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 무안공항 원할
-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